

광주시 영상·영화산업 생태계 조성 '젠걸음'

영상영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2개 분야 10대 과제 추진 독립영화계·여성영화계 보조금 지난해 비해 69% 증액

광주시가 지역 영화인들의 진취적인 영화 제작환경을 마련하고 영상문화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올해 관련 지원사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영상·영화진흥사업을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과제와 실행계획을 담은 '광주 영상·영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와 학계, 연구원, 활동가들로 구성된 광주영상·영화진흥위원회 회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광주지역 영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영상영화 생태기반 구축과 안정화, 영상영화산업 활성화 등 2개 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영화 기획개발 지원을 비롯해 첨단 영상·영화제작 인력양성과 취업 연계, 영화촬영지 데이

터베이스화, 스튜디오와 시설 장비 현대화, 관리인력 충원, 실감 콘텐츠 기반 특수 영상영화제와 실감콘텐츠마켓, 유명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기획, 뉴미디어 콘텐츠 지원, 1인 영상 크리에이티브 육성 등이 주된 내용이다.

또 광주독립영화제와 여성영화제 등 양대 영화제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대폭 늘렸다.

양대 영화제 보조금은 1억3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69% 증액됐다. 지원 시기도 상반기로 앞당겨져 광주독립영화제의 경우 지난 23일부터 4일간 개최됐다. 11월 개최 예정인 광주여성영화제는 지난해보

다 다양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광주독립영화관의 기능을 확대해 시네마테크로 조성키로 했다. 시네마테크는 일반적 개봉관과 달리 영화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해 자료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 상영관이다.

강영구 시 문화산업과장은 "올해는 광주 영상·영화진흥사업이 본격화에 오르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지역 영상·영화인들이 안정적 제작 환경에서 참신하고 우수한 영상·영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

"행복했습니다" 이용섭 시장 퇴임

"광주형 일자리·인공지능 산업 등 성과 창출"

"지난 4년, 함께했던 시간 행복했습니다."

'혁신전도사'로 통하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기치로 달려온 민선 7기 4년을 마무리하고 29일 명예롭게 퇴임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 4년간의 소회를 밝힌 뒤 광주시정을 위해 함께 뛰어온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거듭 전했다.

이 시장은 퇴임사를 통해 "지난 4년, 광주는 저의 '모든 것'이었고 '전부'였다"며 "매일 매일, 정의를 쫓아온 광주역사의 새롭고 아름다운 장면을 그려주신 시민과 함께 나누어 온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남는 공직생활 동안 '울더라도 굳어지지 말며, 흥더라도 치우치지 말고, 맞닥뜨리면 싸우지 말고, 새로운 일에 기쁨을 얻고, 이대로에 알아지지 말며, 힘 앞에 작아지지 말라'는 재근담의 글귀를 생활화하며 어려움을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인권도시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도시, 노사상생 도시, 미래자동차 중심도시,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도시로 도약하면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대표적 성과인 광주형 일자리와 인공지능은 광주발전과 미래 일자리를 책임질 양대 축이자 한국경제의 새로운 희망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힘든 내색 없이 전심전력을 다해준 여러분 덕분에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공(功)을 직원들에게 돌린 뒤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 동안 '울더라도 굳어지지 말며, 흥더라도 치우치지 말고, 맞닥뜨리면 싸우지 말고, 새로운 일에 기쁨을 얻고, 이대로에 알아지지 말며, 힘 앞에 작아지지 말라'는 재근담의 글귀를 생활화하며 어려움을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

"학생들이 대한민국 희망" 장휘국 교육감 퇴임

3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임기 12년을 마무리했다.

29일 오전 본청 2층 대회의실에서 장 교육감의 퇴임식이 열렸다. 퇴임식에는 장 교육감의 가족·친지, 각 국장 등 분청 간부, 직속기관장, 각급 학교협의회장, 노동조합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장 교육감은 퇴임식에서 지난 12년 동안 광주교육을 이끌어온 수장으로서의 소회를 밝히며 시민과 교

육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 교육감은 청소년들을 향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져달라. 스스로가 역사와 삶의 주인이다.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1970년 교직생활을 시작, 52년 4개월 동안 교육자의 길을 걸어왔다. 해직교사 5년을 포함, 초·중등교사로 32년 6개월, 교육위원 8년, 교육감 12년 등 평생을 교육에 바쳤다.

/김도기 기자

광주·전남 소비자심리 위축 '비관적' 전환

6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가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6월 중 소비자동향조사 실시한 결과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

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2.6으로 전월 대비 9.2p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 낙관적(101.8)에서 비관적으로 전환한 것이다.

월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도 96.4로 전월 대비 6.2p 하락했다.

/권형안 기자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통과 1주년 기념 포럼'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김희재·서동용·소병철·주철현 의원실에서 주최한 '여·순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1주년 기념 포럼'에 김용범 기자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 제공

'7월 국제선 운항 재개' 전남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박차'

2년 4개월 만에 운항 재개...5개 부정기 노선 운항 예정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의 7월 국제선 운항 재개와 함께 항공사 재정 지원 확대,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확충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베트남 다낭, 태국 방콕 정기노선과 몽골 울란바토르, 베트남 달랏 등 5개 부정기 노선이 운항 예정이다. 베트남 하노이 노선 등도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국내선의 경우 각각 주 2회 운항 중인 제주와 김포 노선이 주 3회로 증편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운항 중

은 2021년 2만명으로 줄었다.

무안국제공항은 정부의 국제선 조기 정상화에 맞춰 7월부터 2년 4개월 만에 국제선 운항이 재개될 예정이다. 베트남 다낭, 태국 방콕 정기노선과 몽골 울란바토르, 베트남 달랏 등 5개 부정기 노선이 운항 예정이다. 베트남 하노이 노선 등도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국내선의 경우 각각 주 2회 운항 중인 제주와 김포 노선이 주 3회로 증편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운항 중

단된 울산 노선도 주 2회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동안 국제선 운항 재개에 대비한 편의시설 확충을 진행, 관리동 신축을 완료했다.

공항 주차장도 1895면에서 3002면으로 증설했다. 공항공사 등의 관리동 이주로 확보한 공간을 활용한 면세점 확장, 대합실 면적 조정 등 여객청사 리모델링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공항 기반시설 확충도 차근차근 진행, 2800m인 활주로를 3160m로 연장하는 공사가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박종배 기자

정보문화 발전유공 복구, 국무총리상 수상

광주시 복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35회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실시한 '2022년 정보문화 발전유공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보문화 유공 정부포상은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과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유공자와 기관에 수여되는 상이다.

복구는 그동안 IoT 기술과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협력 기관과 함께 정보화 교육을 실시, 주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1인 가구, 치매 노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살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미세 먼지를 측정해 주민들과 공유하는 주민 참여 환경 지도를 제작해 깨끗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환경문제 해결에도 힘썼다. 또한 새롭게 단장한 정보화 교육장에 1인 미디어 창작소를 설치해 주민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 과의존 자가 진단 및 올바른 사용 습관 형성 캠페인, 전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로써 복구는 민선 7기에만 대통령상 6회, 국무총리상 7회를 수상하며 전국에서 주목받는 혁신 성장을 이뤘다고 있다.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전원주택 · 조립식주택
홈테리어 · 상업테리어

010-6265-0057



철골 공사
조립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테라스 축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

